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양식에 대한 실증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attribution style of individual economic success

김윤식^{*†} · 양해솔^{**}

Yoon-Sik Kim^{*†} · Hae-Sool Yang^{**}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정보경영전공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Abstract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on an attributions style of individual economic success based on the attributions theory. I established the title of an empirical study on an attributions style of an individual economic success based on a theoretical analysis and an advanced research of an attributions theory.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of 238 adults inhabi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age and gender sample extraction method for an empirical study. A results on attributions factors of individual economic success, Persons under 1billions won indicated that an individual economic success charged off ingrained environment(72.1%) and efforts(18.0%). Persons over 3 billions won suggested that an individual economic success charged off efforts(48.0%) and ingrained environment(12.0%). A man of few wealth showed that an individual economic success chalked up to an ingrained environment. But wealthy persons demonstrated that an individual economic success charged off an individual efforts by attributions style of cause perception, Weiner(1979).

Key words : Cognitivism, Individual economic success, Attribution theory, Attribution style.

요약

본 연구는 귀인이론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개인의 경제적 성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귀인양식을 보이는지 고찰하는 실증연구이다. 먼저 귀인이론의 이론적 고찰 및 귀인양식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의한 논거를 토대로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양식 고찰’이라는 연구논제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연구논제를 실증적 방법으로 고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238명(연령대/성별 할당표본추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요인에 대해, 보유자산 10억원 미만 사람들은 태생적 환경조건 72.1%, 노력 18.0%로 나타나고, 보유자산 30억원 이상 사람들은 태생적 환경조건 12.0%, 노력 48.0%로 나타났다. 이러한 귀인양식을 Weiner(1979)가 주장한 귀인이론의 원인지각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는 원인에 대해 보유자산이 적은 사람은 태생적 환경조건 탓으로 돌리고, 보유자산이 많은 사람은 노력 덕분이라고 믿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주제어 : 인지주의, 개인의 경제적 성공, 귀인이론, 귀인양식.

† 교신저자 : 김윤식(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정보경영전공)

E-mail : yunskimk@naver.com

TEL : 011-723-9003

1. 서론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는 감성과학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인지주의(Cognitivism)¹⁾와 개인의 경제적 성공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인지주의 동기이론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개인의 경제적 성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귀인양식(Attribution Style)을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였다. 먼저 귀인이론의 이론적 고찰 및 귀인양식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 의한 논거를 토대로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양식 고찰’이란 연구논제를 정립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귀인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보유자산, 연령대, 학력, 성별 등을 기준으로 어떠한 차별적 귀인양식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아울러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귀인양식의 특성 및 논점과 관련하여 기존 귀인이론의 논리, 주장, 선행연구 등과 대비, 연계하여 평가 정리하였다.

2.이론적 배경

2.1. 귀인이론의 개관

귀인(Attribution)이란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말하게 된 이유, 혹은 우리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말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행하는 추론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관찰하는 언어적, 외적 행위로부터 의도나 태도 같은 행동의 근저에 있는 특징들을 추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은 늘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려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귀인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즉 ‘귀인의 개인차’가 있는바, 이는 자신 또는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원인을 누구 내지 무엇의 탓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발생한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의 발생 또는 성취 여부가 자기가 할 탓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의 탓 내지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즉 어떤 일의 결과를 전자와 같이 사람의 특성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성향귀인(Dispositional Attribution), 후자와 같이 특수한 상황요

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상황귀인(Situational Attribution)이라 일컫는다.

이와 같이 귀인과 태도는 사람들에 따라 차별적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이른바 귀인양식(Attribution Style)이라 부르는데, 이는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되는 것이다. 귀인양식은 어떤 일의 실패에 대해 외적, 불안정적, 특정 요인 등에 귀인 시키는 경향을 갖는 낙관적 귀인양식(Optimistic Attribution Style)과 내적, 안정적, 전반적 요인 등에 귀인 시키는 경향을 갖는 비관적 귀인양식(Pessimistic Attribution Style)으로 구분된다.

귀인이론은 관찰된 행동의 원인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법칙을 규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케 하려는 하나의 이론적 체계이다. 즉 인간행동의 원인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제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의 작용구조 및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원인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이론을 귀인이론이라고 한다.

모든 귀인이론의 공통점은 어떤 반응의 원인에 대한 추론 즉 ‘인과적 귀인’이 인간의 태도나 행동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특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된 개인이 그것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의 후속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귀인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은 관찰자가 합리적으로 정보처리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주어진 재료의 해석에 선입견, 기대, 자기관여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귀인의 오류 내지 편향이라 한다. 예컨대 ‘현재성 편향’은 관찰자에게 현저하게 지각되어지는 자극의 속성에 주의를 하고 그 속성이 행위자의 행위를 야기한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근본귀인오류’는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특성 탓으로 여기고 상황의 힘을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행위자-관찰자 편향’은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상황의 탓으로 돌리나 관찰자들은 행위자의 행위원인을 내적 특성 탓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 즉 ‘자기본위적 편향’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잘된 경우는 스스로의 책임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남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말한다.

1) 인간의 능동적 인지과정 분석에 주안점을 두는 주의.

2.2. 주요 귀인이론

귀인이론은 1950년대 심리학계에서 행동주의가 퇴조하고 인지주의적 관점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등장한 이론이다. 귀인이론은 하이더(Fritz Heider, 1944)의 ‘현상적 인과성(Phenomenal Causality)’이라는 논문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논문에서 그는 행위와 원인에 대한 상식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여기서 귀인이론의 선구가 되는 두 개의 일반명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대인관계들은 주로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이 타인들의 행위에 대해 행하는 해석의 함수이다. 둘째 귀인과정의 기초가 되는 동기에 대해 사람들이 일시적인 사상(事象)들을 그 사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행위자의 기질적 속성 또는 환경의 안정적 내지 불안정적 속성들에 그 원인을 돌림으로써, 자신이 관찰하는 일시적 사상들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이더의 인과분석 즉 귀인이론은 타인행위에 대한 지각자가 그 행위가 행위자의 내면적 속성 즉 인적 성향(능력, 노력, 의도, 태도 등) 탓인지 아니면 행위자가 처한 상황 즉 환경적 성향(일의 성격, 난이도, 역할, 운수 등) 탓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는 레빈(Kurt Lewin, 1936)이 주장한 행동결정의 함수관계 $B(\text{행동}) = f(P - \text{인적특성}, E - \text{환경})$ 즉 인간 개인의 욕구와 주위 환경에 의해 행동 양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모형을 토대로 확립된 이론으로서 단일 차원의 귀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단일차원 귀인의 한계점은 ‘능력’과 ‘노력’은 둘 다 내적 차원의 귀인이지만 각기 다른 행동양식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쁜 성적을 능력부족 탓으로 돌리면 다시 그런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력부족으로 돌리면 미래에는 나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귀인이론에 대한 관심은 뎀(Daryl Bem, 1965)이 귀인이론 접근을 통해 인지부조화 이론을 재해석함으로써 꽃피게 되었는데, 뎀은 사람들이 자신이 관찰한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추론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태도를 추론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뎀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욕구나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자기가 한 행동을 기초로 자기의 욕구, 태도, 신념 등을 비로소 인지하게 된다는 ‘자기지각(Self-perception)’ 이론을 내세웠다.

샤크타(Schachter, 1964)는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 ‘정서의 판단과 귀인의 관계’로 설명하는 ‘정서의 2 요인설’을 주장하였다. 즉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흥분을 느껴야 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인지적 해석 및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생리적 흥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으며 그 해석 양태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가 규정된다는 것이다.

와이너(Bernard Weiner, 1979)의 귀인이론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공이나 실패의 행동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즉 성공이나 실패의 그 원인을 무엇으로 귀인하느냐에 따라 후속행동과 정서적 경험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은 그들의 성공이나 실패를 능력, 노력, 과제의 난이도, 운 등으로 귀인시키는데, 주어진 결과에 따라 하나 혹은 두 개 요소들을 주된 이유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 노력, 과제의 난이도, 운 등의 귀인들은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가능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추론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인간의 동기(Motivation)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원인의 소재(Locus of control)는 원인을 학생 내부 아니면 외부에서 찾느냐는 것이고, 안정성(Stability)이란 시간경과나 상황에 의한 원인의 변화 여부에 따라 안정 또는 불안정으로 분류되고,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은 원인이 학생 의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느냐에 따라 통제가능과 통제불가능으로 분류된다.

켈리(Harold Kelley, 1973)는 귀인이론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과론적 설명을 하며, ‘왜’로 시작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라 하였다. 그가 주창한 공변이론(Covariation Theory)은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발생하는 특정 결과와 특정 원인요소가 공존하는지를 살펴서 귀인하게 된다는 원리로서, 두 사상(사건이나 상태)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개인행동 원인의 귀속방향은 특이성, 함의성, 일관성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특이성(Distinctiveness)은 관찰자로서 행위자의 행위가 특정 자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반응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함의성(Consensus)은 관찰자로서 같은 상황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일관성(Consistency)은 관찰자로서 행위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결정요소는 결국 사람들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주어 내적귀인과 외적귀인으로 구분되

어 지각된다고 보았다. 내적귀인은 어떤 행위의 원인을 내적인 즉 사람의 능력, 동기, 성격 때문이라 이해하는 것이고, 외적귀인은 어떤 행위의 원인을 상황요인, 일의 난이도, 운, 남의 도움 등 외부 환경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존스와 데이비스(Jones and Davis, 1965)는 귀인이론의 연장선으로서 상응추론이론(Correspondent Inference Theory)을 제기하였다. 이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때, 개인이 그 행동에 상응하는 성향을 가져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혹은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설명 방식이다.

즉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 취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특정행동이 그러한 행동을 할 성향 또는 기질(Disposition)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추론함으로써 행동의 원인을 판단한다고 보는 것이다.

존스와 데이비스는 사람의 행동이 의도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관적일 때 정보의 가치가 높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행동을 유발한 의도 즉 원인은 어떤 사람의 내면에 깔린 안정적 기질과 상응한다고 판단하는 귀인양식을 곧 상응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응추론의 행태는 특이성이 적을수록 그리고 선택된 행동에 부정적 요소가 많을수록 긍정적인 요소에 대한 기질을 더 강하게 추론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라터(Julian B. Rotter, 1966)는 일반적 상황에서 경험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보상에 관한 믿음으로 규정되는 ‘통제의 소재’에 기반한 귀인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어떤 일의 결과가 노력이나 능력과 같이 개인의 내적요소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으면 내재적 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이고, 환경이나 운 등 외적요소에 의해 달려있다고 믿으면 외재적 통제(External Locus of Control)라 설명된다.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 일의 성취(y) = f (능력, 노력, 환경, 운)라는 함수관계이다. 즉 일의 성취는 내적요소인 능력과 노력, 외적요소인 환경과 운 등의 각각의 독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귀인모형이다.

참고로 와이너는 학업결과(y) = f (능력, 노력, 과제의 난이도, 운)의 함수관계로 해석하였는데, 여기에서 라터와 와이너가 주장한 귀인함수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즉 라터는 미래의 사건과 연관된 ‘기대’를, 와이너는 이미 일어난 사태의 ‘원인지각’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두 이론은 귀인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행동양식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인다고 한다. 예컨대 일의 성패를 능력 및 노력으로 귀인 하였을 경우, 라터는 두 가지 모두 내적 통제요소로서 다음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와이너는 노력은 자신이 통제가능한 요인이지만 능력은 변화시키기 어려운 안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다음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3. 선행연구

귀인양식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해서는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8)’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성공의식을 토착심리학의 접근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토착심리학 입장에서는 ‘일상의 지식’은 본질적으로 상황 의존적이고, 경험적이며, 전체 속의 한 부분이며, 과정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지식은 추상적이고, 분석적이며, 의미론적이고, 선언적인 ‘과학적 지식’과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관점에서, 경험에 기초한 일상의 지식을 분석적인 과학적 지식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하이더가 주장한 상식심리학 즉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식적 인식론(Naive Epistemology)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해리(Harre, 1985)가 지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범한 상식이 사회과학적 지식보다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사회적 표상을 이해함에 있어 완전히 깨닫고 설명할 수 있거나, 인식할 수는 있으나 깨닫지 못하거나,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등의 3가지 경우로 분류되는데, ‘성공’과 같은 사회적 표상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나 대리학습과 같은 매개된 경험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자기의 성공을 스스로 지적하도록 하여,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 성공이 자랑스러운 이유,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성공 관련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 등에 대해 자유반응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는 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를, 성인의 경우 돈벌이와 관련이 있는

직업적(직업, 직장, 일) 성취를 1순위로 꼽았다. 한편 성공이 자랑스러운 이유로는 노력의 대가, 극복, 보람과 만족, 목표 성취, 의미있는 인간관계 형성, 원만한 가정생활, 사회적 안정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성공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는 부모, 친구, 선생님, 가족, 직장 동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으로는 정서적 지원, 조언, 적절한 환경조성, 경제적 지원, 협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기조절(강한 의지력과 노력), 성격(성실성, 기질), 가정환경, 주위 사람들의 도움, 능력, 신앙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 중에서 자기조절이 가장 비중이 높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의 핵심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 및 자신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원인 등 두 가지 모두 ‘노력’이라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강한 의지력과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문제 정립

본 연구의 논제를 수립함에 있어 와이너의 귀인이론인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와 관련한 행동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되, ‘성공’의 성취원리를 기본 줄기로 삼았다. 여기에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연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으로 나타난 ‘돈벌이’를 성공의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2가지 논거를 연계 응용하여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양식 고찰’을 연구논제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연구논제의 요체는 귀인양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즉 개인의 경제적 성공과 연관성 내지 역학관계가 있는 ‘귀인요인’으로서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 필요한 귀인요인으로서 라터가 주장한 귀인양식 모형을 응용하여 도입키로 하였다. 즉 어떤 일의 성취는 내적요소인 능력과 노력, 외적요소인 환경과 운 등의 귀인요인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일의

성취 = f(능력, 노력, 환경, 운)’라는 귀인양식 모형이다.

이러한 귀인요인 중에서 능력, 노력, 운 등은 동일한 개념으로 도입하되, 환경은 ‘태생적 환경조건’으로 특정화 시켰다. 그 이유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 성취여부에 태생적 환경조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인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생적 환경조건이란 태어난 나라, 부모, 유전적 자질 등으로 규정되는 것으로서, 와이너의 귀인특성 분류 중 통제가능성 측면에서 ‘통제불가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성공과 관련하여 능력, 노력, 태생적 환경조건, 운 등의 4가지 귀인요인이 각각 ‘실제로 영향을 미쳐’ 일정한 형태의 귀인양식을 보일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자산, 연령대, 성별,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 귀인양식의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3.2. 연구수행 구도

연구가설로 설정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귀인양식’에 대해 실증적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귀인양식 모형에 적용된 귀인요인 관련 사람들의 인식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Table 1. Sample Frame - Age & Sex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Population
Age	20s	47	19.7%	6.69 million
	30s	50	21.0%	7.56 million
	40s	66	27.7%	8.41 million
	50~65	75	31.6%	11.0 million
	Total	238	100%	33.7 million
Sex	Male	118	49.6%	19.6 million
	Female	120	50.4%	20.0 million
	Total	238	100%	39.6 million

설문조사 구도는 표 1과 같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65세 이하)을 대상으로 연령대(20대~

60대) 및 성별 인구규모 비례에 의한 할당표본추출을 적용하여 238명(통계적 검정력 임계치 고려, 부부간 배제2)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인의 경제적 성공 성취여부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귀인요인과 부자유형별 부자가 되는데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식구조이다. 둘째 자신의 입장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산규모 및 현재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현금, 금융자산, 부동산 모두 포함, 결혼한 경우 부부합산)이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응답자의 보유자산 및 학력 분포도 및 연령대/학력별 보유자산 규모의 분포도이다.

설문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대면조사 형식을 취했다. 다만 귀인실태 조사 관련해서는 가설로 설정한 4가지 귀인요인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도록 기타항목을 두었다. 특별히 귀인요인 관련해서는 ‘능력’은 타고난 자질에 전문적 교육/훈련이 더해져 갖게 된 당장 구현가능한 역량, ‘노력’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 ‘운’은 예측 불가능한 일/사건/인연, ‘태생적 환경조건’은 태어난 나라, 부모, 유전적 자질 등으로 귀인요인별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도왔다.

3.3. 사회인구학적 기술통계 결과

전체 조사대상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파악된 사회인구학적 통계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2.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 Property & Academic Background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Possessive Size of Property	Under 1 Billion Won	122	51.3%
	1~2 Billion Won	63	26.5%
	2~3 Billion Won	33	13.9%
	3~4 Billion Won	18	7.5%
	Over 4 Billion Won	2	0.8%
	Total	238	100%

Academic Background	Under High School	105	44.1%
	Over College & University	138	55.9%
	Total	238	100%

먼저 표 2와 같이 응답자의 보유자산 규모의 분포 비율을 보면, 10억원 미만 51.3%, 10~20억원 26.5%, 20~30억원 13.9%, 30~40억원 7.5%, 40억원 이상 0.8%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별 분포비율에 있어서는 고졸이하 44.1%, 대학이상 55.9%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대별 보유자산 분포비율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10억원 미만 자산보유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20대 80.8%, 30대 60.0%, 40대 47.0%, 50대 이상 30.7% 등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 Property by Age Group

Classification	20s	30s	40s	50~65	Total
Under 1 Billion Won	38	30	31	23	122
	80.8%	60.0%	47.0%	30.7%	51.3%
1~2 Billion Won	6	12	23	22	63
	12.8%	24.0%	34.8%	29.3%	26.5%
2~3 Billion Won	3	6	8	16	33
	6.4%	12.0%	12.1%	21.3%	13.9%
3~4 Billion Won	0	2	4	12	18
	0%	4.0%	6.1%	16.0%	7.5%
Over 4 Billion Won	0	0	0	2	2
	0%	0%	0%	2.7%	0.8%
Total	47	50	66	75	238
	100%	100%	100%	100%	100%

Source: Survey Findings Aimed at the Seoul & Gyeonggi Province Citizens, 2012.

2) 결혼한 경우 보유자산 산정은 부부합산 기준

20억원 이상 자산보유자의 비율은 50대 이상에서만 40% 정도의 수준을 보인 반면, 다른 연령대에 있어서는 40대 18.2%, 30대 16%, 20대 6.4% 등 50대 이상 비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학력별 보유자산 분포비율을 보면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4.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 Property by Academic Background

Classification	Under High School	Over College & University	Total
Under 1 Billion Won	63	59	122
	60.0%	44.3%	51.3%
1~2 Billion Won	21	42	63
	20.0%	31.6%	26.5%
2~3 Billion Won	14	19	33
	13.3%	14.3%	13.9%
3~4 Billion Won	6	12	18
	5.6%	9.0%	7.5%
Over 4 Billion Won	1	1	2
	0.9%	0.8%	0.8%
Total	105	133	238
	100%	100%	100%

Source: Survey Findings Aimed at the Seoul & Gyeonggi Province Citizens, 2012.

고졸이하는 10억원 미만 60.0%, 10~20억원 20.0%, 20~30억원 13.3%, 30억원 이상 6.5%이고, 대학이상은 10억원 미만 44.3%, 10~20억원 31.6%, 20~30억원 14.3%, 30억원 이상 9.8% 등으로 나타났다. 고졸이하가 대학이상에 비해 10억원 미만의 분포비율이 다소 높고, 10억원 이상 그룹에서는 각각의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설문조사 결과

4.1. 개인의 경제적 성공 자산규모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해야 경제적 성공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5. Gap between Criteria of Economic Success and Possessive Property- Distribution Ratio

Classification	Criteria of Economic Success(a)	Possessive Property(b)	Note (a-b)
Under 1 Billion Won	9.7%	51.3%	-41.6%
1~2 Billion Won	18.9%	26.5%	-7.6%
2~3 Billion Won	26.9%	13.9%	13.0%
3~4 Billion Won	20.6%	7.5%	13.1%
Over 4 Billion Won	23.9%	0.8%	23.1%
Total	100%	100%	

Source: Survey Findings Aimed at the Seoul & Gyeonggi Province Citizens, 2012.

그 결과 표 5와 같이 20~30억원 26.9%, 40억원 이상 23.9%, 30~40억원 20.6%, 10~20억원 18.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중앙값 기준으로 평균치로 환산해 보면 대략 30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이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자산규모의 분포비율 대비 실제 보유자산 규모의 분포비율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10억원 미만을 경제적 성공이라 생각한다는 응답비율이 9.7%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10억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비율이 51.3%에 이르고, 20억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성공기준으로 보는 비율이 71.4%인데 반해, 실제로 20억원 이상을 보유한 비율은 22.2%에 지나지 않아, 해당 그룹별로 각각 41.6%, 49.2% 비율만큼의 응답자들은 성공기준과 실제 보유자산과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4.2. 부자 관련 핵심 영향요인의 의식구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과 관련한 4가지 귀인요인의 ‘역학적 유의성’ 여부를 타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기 위해, 부자유형별 그러한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하였다.

참고로 취업 포털 잡코리아(직장인 700명 대상 부자기준 설문조사, 2012)에 따르면 부자의 기준으로서 보유자산이 평균 45억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가 하면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부자라고 보는 KB금융지주연구소(한국 부자 연구, 2011)의 조사결과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규모가 앞서 살펴본 개인이 경제적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자산규모에 30억원에 비해 15~20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cognition Actual Condition on a Main Factors by Rich Man Types

Classification	Ratio of Selection of a Main Factor of Making Rich Man(%)				
	Ingrained environment	Effort	Capacity	Lucky	Total
Chaebol Junior	96.6	1.7	1.3	0.4	100
Self-made Millionaire	0.0	83.2	10.9	5.9	100
Lottery Winner of Great Sum	0.0	0.8	0.0	99.2	100
Famous Star of Movie & Sports	2.5	14.7	79.0	3.8	100
IT Enterpriser with the Title of ph.D of Computer Science	2.1	42.4	52.9	2.6	100

Source: Survey Findings Aimed at the Seoul & Gyeonggi Province Citizens, 2012.

부자유형별로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응답(단일응답) 빈도를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재벌2세는 태생적 환경조건이

96.6%, 자수성가는 노력이 83.2%, 거액 복권 당첨자는 운이 9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능력이 79.0%를 차지한 반면, 컴퓨터공학 박사를 취득한 후 IT기업을 창업하여 부자가 된 경우에는 노력(42.4%)과, 능력(52.9%)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자유형별로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4.3.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실태

개인의 경제적 성공과 관련한 사람들의 귀인요인 인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요인으로 선택된 항목(노력 등 4가지)은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의 경제적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귀인요인에 대한 채택비율(단일 응답)의 전체 평균을 보면, 태생적 환경조건 47.9%, 노력 32.8%, 능력 17.2%, 운 2.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전체 평균치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유자산 기준으로 보면, 10억원 미만은 태생적 환경조건(이하 태생)이 72.1%로 노력 18.0%에 비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10~30억원은 노력 48.3%, 태생 25.3%, 능력 23.1%로서 태생과 능력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30억원 이상은 노력 48.0%, 능력 40.0%로서 비슷한 수준인 반면 태생은 12.0%에 불과했다.

한편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30대 이하의 태생이 61.9%로서, 노력 24.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은 노력이 40.0%로서, 태생 33.3%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20대만 살펴보면 태생이 74.0%로서, 노력 20.0%, 능력 4.0%, 운 2.0% 등에 비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Actual Condition on Main Attribution Factors of Individual Economic Success

Classification		Ratio of Selection of a Main Attribution Factor of Individual Economic Success (%)			
		Ingrained environment	Effort	Capacity	Lucky
Possessive Size of Property	Under 1Billion Won	72.1	18.0	8.2	1.6
	1~3 Billion Won	25.3	48.3	23.1	3.3
	Over 3Billion Won	12.0	48.0	40.0	0.0
Age Group	Under 30s	61.9	24.7	12.4	1.0
	50~65	33.3	40.0	24.0	2.7
Sex	Male	43.8	36.4	16.5	16.5
	Female	52.1	29.1	17.9	0.9
Academic Background	Under High School	48.6	38.6	12.9	0.0
	Over College & University	47.6	30.4	19.0	3.0
Average		47.9	32.8	17.2	2.1

Source: Survey Findings Aimed at the Seoul & Gyeonggi Province Citizens, 2012.

마지막으로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태생을 1순위 귀인요인으로 꼽았지만, 남성이 여성 43.8%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52.1%로 나타났다. 고졸이하와 대학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각각 모든 항목에서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별다른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5. 논의

5.1. 종합평가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논제가 갖는

가설과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첫째,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사회인구학적 측면의 귀인양식의 특성을 고찰함에 있어서, 기존 귀인론에서 차용하여 연역적으로 적용한 능력, 노력, 환경(태생적 환경조건), 운 등의 귀인요인이 실제로도 영향요인 또는 행동원인으로 작용하느냐는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 부자가 되는데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구조에 있어 각각 4가지 귀인요인 모두 선택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항목을 개설하여 다른 귀인요인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나 실제로 채택된 비율은 극소수로 통계적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성공 성취와 관련 태생적 환경조건, 노력, 능력, 운 등의 귀인요인들이 ‘독립적으로 분명히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 특정 귀인양식이 형성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벌2세, 자수성가, 거액복권 당첨자 등 특정 부자유형에는 특정 귀인요인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의 공통성 즉 상식인식론(Naive Epistemology)이 발견되었다.

둘째, 귀인양식에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양상을 보이느냐는 것이다. 개인의 경제적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귀인요인에 대해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10억원 미만은 태생적 환경조건이 72.1%로 노력 18.0%에 비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30억원 이상은 노력(48%)과 능력(40.0%)이 비슷한 수준이고 태생적 환경조건은 12%에 불과했다.

한편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30대 이하의 태생적 환경조건이 61.9%로서, 노력 24.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50대 이상은 노력이 40.0%로서, 태생적 환경조건 33.3%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별과 학력별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귀인요인의 선택비율이 각각 전체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보유자산 및 연령대를 기준으로 경제적 성공 관련 귀인양식의 차별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통계적 유의도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보유자산 분포비율이 모집단(전체 인구)의 실제 현황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추론되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산 기준으로만 분석해보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10억원 미만과 30억원 이상 그룹의 귀인양식 차이점에 대해, 각 그룹별 귀인요인의 서열척도(순위 분석)를 기준으로 t(검증)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태생적 환경조건’은 t값 3.339, 유의확률이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두 집단의 평균값은 같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력’도 t값 2.752, 유의확률 0.001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능력’과 ‘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그룹 간 적어도 태생적 환경조건과 노력 관련해서는 귀인양식의 차별적 양상이 실질적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통계적 검증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귀인양식의 특성을 미루어 볼 때, 개인의 경제적 성공 성취요인 관련, 보유자산이 적은 층과 젊은 층은 외적요소와 통제불가능에 해당되는 ‘상황귀인’에 치우치고, 보유자산이 많은 층과 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내적요소와 통제가능에 해당되는 ‘성향귀인’에 기우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귀인양식에 있어 공통된 양상을 보이는 특정 사회인구학적 요소이다.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10억원 미만 자산보유자들은 태생적 환경조건 72.1%, 노력 18.0%, 20대 젊은 층은 태생적 환경조건 74.0%, 노력 20.0%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0억원 미만 및 20대 사람들의 대부분(70% 이상)이 외적요소이고 통제불가능한 태생적 환경조건을 경제적 성공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귀인양식의 형성에 있어 귀인요류 내지 편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자산규모나 연령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가치관, 교육수준, 삶의 환경조건, 성격적 기질, 경험 등에 따라 귀인양식의 차별적 특성을 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사람들의 귀인양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바, 개인의 경제적 성공 성취 관련 와이너가 주장한 귀인이론의 ‘원인지각’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보유자산이 적은 사람은 태생적 환경조건 탓으로 돌리고, 보유자산이 많은 사람은 노력 덕분이라고 믿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는 영향요인에 대해 라터가 주장한 귀인이론의 ‘미래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태생적 환경조건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보유자산이 적고, 노력이라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유자산이 많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현상에 대해 귀인양식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것은 켈리가 주장한 특이성, 함의성, 일관성 등의 귀인양식 작용요소에 ‘자기본위적 편향’ 즉 ‘이기적 편향’이라는 귀인요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5.2. 논의

본 연구논제의 분석 및 평가 과정을 통해 제기된 5가지 논점에 대해 정리를 하였다.

하나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 관련 젊은 층의 귀인양식이 갖는 함의 및 시사점이다. 20대 경우 태생적 환경조건이 74.0%로서 노력 20.0%보다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라이프사이클 특성상, 개인의 경제적 성공 여부에 대한 인식 관련 50대 이상은 와이너의 ‘원인지각’에, 20대 이하는 라터의 ‘기대’(앞으로 돈 벌 시간이 많이 있음)에 방점을 두었다고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태생적 환경조건은 상황적, 외적, 통제불가능 등의 특성을 나타내는 귀인이다. 따라서 태생적 환경조건 비중이 월등히 큰 20대의 귀인양식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기대심리는 상대적으로 ‘비관적 귀인양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력보다는 환경조건이 경제적 성공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어, 스스로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하여 경제적 성공을 이루겠다는 ‘동기’도 미약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0대의 이러한 귀인양식은 도전의식 취약, 안정적 직업 선호, 지나친 부모 의존도 등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갖는 성향과 세태를 대변해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둘은 귀인양식의 선행 연구결과와의 비교이다.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연구’에서 성인의 경우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경험으로는 돈벌이 관련(직업, 직장)이 1순위로 꼽혔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기조절(강한 의지력과 노력)이

3) t-검증은 두 그룹의 평균이 서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기법

가장 비중이 높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 태생적 환경조건이 47.9%로서 노력 32.8%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50대 이상과 30억원 이상 자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노력이 가장 비중이 높은 각각 40.0%, 48.0% 등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셋은 기존 귀인이론에서 주장한 귀인의 성격규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와이너는 노력귀인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요인이지만 능력귀인은 변화시키기 어려운 안정적 요인이라 보았다. 그런데 능력이란 일반적으로 타고난 자질에 전문적 교육/훈련이 결합되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능력은 태생적 환경조건과 노력이 합쳐져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런만큼 ‘능력’은 상황과 성향이 그리고 내적과 외적이 결합된 것으로 일정부분 통계가능한 귀인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귀인양식에서 ‘능력귀인’의 비중이 높다하더라도, 와이너의 주장처럼 반드시 수동적 내지 비판적 귀인양식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긍정적 귀인양식을 지향하는 30억원 이상 자산보유자들의 경우 능력이 40%로서 노력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넷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앞서 보유자산이 적을 수록, 젊은 층일수록 귀인양식에 있어 태생적 환경조건에 귀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젊은 층이지만 보유자산이 많은 경우 그리고 장년층이지만 보유자산이 적은 경우의 집단에서는 어떠한 귀인양식의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태생적 환경조건 비중이 높은 귀인양식의 경우 그 핵심원인이 보유자산 규모 또는 연령 때문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연령대별 자산규모 분포비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실제 자산보유 현황을 대변하기에는 샘플의 대표성에 있어 한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다섯은 후속 연구과제이다. 이번에 수행한 연구와 연계하여 경제적 성공(y) = 상수(α) + 태생적 환경조건(aX₁) + 노력(bX₂) + 능력(cX₃) + 운(dX₄) + 오차(e) 형태의 ‘경제적 성공모형’ 도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리라 본다. 만약 그러한 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경제적 성공 관련 주요 귀인요인들이 실제로 그 모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 조사하여, 이번에 연구된 귀인양식과 비교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을 지각 또는 왜곡하는지 비교분석하는 유용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o, G. P. (2009). Learning style and attribution style of success and failure according to trend of social comparison with high school student, *Korean Journal Educational Research* 15(2), 57~78.
- Choi, S. J. & Choi, S. Y. (1989). *Groping for a integrated attributions model from a normative attributions to a commonsense attributions(규범적 귀인에서 상식적 귀인에 이르는 통합적 귀인모형의 모색)*, Seoul: Chungang University
- Han, D. W. (2004). *Mind and behavior of human being(인간의 마음과 행동)*, Seoul: Bagyoungsha..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Sons
- Jung, J. J. (2003). *Attribution theory of motivation and school learning,(동기의 귀인이론과 학교학습)*, Seoul: Hakjhisa
- Kelly, H. (1991). *Attribution theory*, Seoul: Chungangjeaksung Publishers.
- Kim, J. G. (2004). *Study on educational application of Bernard Weiner' attribution theory((Bernard Weiner의 귀인이론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Seoul: Sangmyung University
- Kim, W. S. (2004). An analysis of attributions process and an empirical study of attributions types of human relationship(귀인과정의 분석과 대인관계의 귀인유형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educational Management*.
- Kwoen, D. H. (2009).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al psychology(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Seoul: Hakjisa
- Kim, E. C. & Park, Y. S. (1998). Study on success consciousness and attribution style of korean(한국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연구),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Study* 12(2), 51~84.
- Lee, J. M. (2003). *Cognitive psychology(인지심리학)*, Seoul: Hakjisa.
- Park, J. J. (2010). Are consumers reasonable in

interpreting publicity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and source credibility, *Journal of Advertising* 87, 109~132.

Weiner, B. (1987). *Motivation theory of human being*, Daegu: Keimyung University

원고접수: 2012.10.10

수정접수: 2012.10.31

게재확정: 2012.11.27